수덕사 근역성보관 '지심귀명례-직염수, 그리고 불교' 展

선암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용문탁의' 가사.

날실-씨실이 짜낸 신심

화려함 꼼꼼함에 '탄성'

9월 9일~10월 31일
한국 · 중국 · 홍콩
텍스타일 문화재 한자리에

직물 불교문화재를 통해 불교 예술과 접목된 수려한 텍스타일 예술을 접한다. 9월 9일 수덕사 근역성보관(관장 정암) 상설전시실과 황하정루에서 '지심귀명례-직염수, 그리고 불교' 전시회가 시작된다.

10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 요녕성 박물관 소장 21점과 홍콩 크리스 홀 컬렉션 소장 26점, 국내 소장 유물등 텍스타일 불교문화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수덕사 근역성보관 측은 "국내외 우수한 직물 예술품이 총망라된 전시회를 통하여 단절된 우리의 우수한 직물문화를 재조명하고, 올바르게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직금 직수의 불화나 불경, 불교 문양 장엄 등 다양한 유물을 전시해 색다른 불교 예술을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교'라는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단절된 전통 직물 문화 전반을 반추해보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중국요녕성에서 건너온 직물 작품들을 살펴보자.

청대에 제작된 '석가모니불도' '출산석가도' '나한도' '세조도' '미불행서' 등의 직물 불화를 비롯해, '여고 아플리케'와 명대에 제작된 '자수미륵불도', 청대에 제작된 '관세음보살도' '포대화상도' '여영산수도', 원대에 제작된 '자수금강경' 등 자수 작품 11점이 한국 나들이에 나섰다.

중국 청 진륭제 때 제작된 '삼세불도'(왼쪽 사진)와 중국 요녕성 소장품인 타피스트리 '석가모니불도'.

홍콩 크리스홀 컬렉션에서는 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직물작품으로는 5~8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금직물편'을 비롯해, 원대의 '미륵불도'와 '불족적도', 청대의 '삼세불도'와 '타피스트리 가사', 15세기에 만든 '연화수보살도'와 '나한도' '오불보관', 13~14세기의 '목장식' 등이 있다. 직금삼세불도는 그 화려함과 꼼꼼함이 눈에 띈다.

직염물로는 16세기에 만들어진 '팔보문협힐'을 선보이며, 자수작품은 15세기 '석가모니불도' '가사편' 원말명초의 '자수봉헌화', 17세기 '아미타불도' '백색다라관음도' '오불보관', 입체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교한 청대의 '문수보살도', 1460년으로 추정되는 '공양선녀도' 천불이 새겨진 15~16세기 '천불가사', 14세기의 '금강교저원식(金剛交杵圓飾)', 16세기 '사자해치가사' 등 중국의 다양한 자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국내소장품으로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쌍용문가사'와 1880년에 만들어진 <묘법연화경> 등의 직물성보들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보살 · 경전이 수놓아진 '25조 자수가사'와 '전(傳) 대각국사 가사' '불화복장낭(佛畵腹藏囊)' <금광명최승왕경> 등 자수작품 등 8점의 성보가 전시된다.

전시유물에 대한 설명회는 9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매주 토 · 일요일에는 전통염색을 배우는 염직체험도 운영한다. www.jisim.net, (041)337-290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동국불교미술인展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재순)가 9월 6~12일 서울 인사아트프라자5층에서 제7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불교 교리와 사상을 담은 불화 조각 공예 등의 분야에서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곽동해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불화 '백의 관음', 김광현 회장(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의 조각 '오세동자와 관음', 김의식 소장(김의식 불교미술연구소)의 불화 '수월관음도', 제21회 불미전 장려상을 수상한 노정용 소장(대안조형연구소)의 '연지에 핀 불심'(사진) 박찬수 관장(목아박물관)의 '마음이 부자인 집' 등의 작품이 풍성하게 전시된다. (02)736-6346

강지연 기자

"'무아'의 사랑이 행복의 열쇠"

오세영 시인, 만해마을 '…작가와의 만남'서 강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한 삶도 불가능합니다. 주는 사랑이든 받는 사랑이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무아의 자리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과 사랑.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원래 불가능하기 때문일까? 오세영 시인(서울대교수 한국시인협회장 · 사진)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무아의 사상'이 행복과 사랑의 삶을 영위시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백담사 만해마을이 강원민방(GTB)과 매월 개최하는 '문학은 살아 있다. 우리시대 대표작가와의 만남'에서였다.

8월 26일 만해마을에서 열린 만남을 통해 오 시인은 "문학은 모순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과학적 진실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행복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행복과 사랑은 과학적 진실 보다는 모순적 진실에 의해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도 조건과 논리를 초월하는 모순적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오 시인은 "인간 자체가 비논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길 역시 모순의 진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 시인은 '좋아한다'는 개념 속의 조건성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전제하며 "조건이 없는 진실한 사랑만이 행복을 주는 사랑"이라고 말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은 '잡아 먹는다'는 조건 때문이지 자신을 희생도 불사하는 '좋아함(사랑)'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의 사랑을 베푸는 삶 즉,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 하려는 노력이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라는 데 오 시인은 방점을 찍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과 복종의 관계'나 '존경의 관계' 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만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는 종교의 기본 가르침이고 문학의 지향점이고 인간의 영원한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인제/글 · 사진=임연태 기자

눈길 끄는 시집 2권

'보살'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효림 스님 '꽃향기에 취하여'
전기철 시인 '아인슈타인의 달팽이'

효림 스님

전기철 시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티끌 속에도 있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는 기업 총수의 일과에도 있다. 그러나 매끈한 도심이나 너저분한 삶의 뒷골목을 가리지 않고 불성(佛性)을 보거나 '무진법문'을 듣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바꿀 수 있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엮은 시집이 있다면?

시인 효림 스님은 두 번째 시집 <꽃향기에 취하여>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꽃으로 변화시키는 통로를 열어 보이고 있다. 기러기 아빠의 슬픔과 이라크 전장의 분노를 바라보기도 하고 길가에 핀 한송이 꽃에 머물기도 하는 스님의 눈길로 엮어진 시들이다. "대를 이어 한쪽으로 탁하게 흐르는 피"를 "자손만대 이어갈 그 순정한 피"(팔월 한가위)로 만들려는 서원을 담은 시편들은 수행자로서 시인으로서 세상을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게 한다.

전기철 시인의 시집 <아인슈타인의 달팽이>도 현대인의 일상에 내재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따사로운 시인의 눈매로 엮어져 있다. 시인이 보는 세상은 각박하고 모순투성이다. 그 모순에서 시인은 대도시의 일상과 인간의 욕망을 조망한다. 노숙자의 몸을 덮고 있는 신문들(노숙자들)과 동대문역에서 탁상시계를 파는 꼽추 아줌마(탁상시계를 울리는 꼽추 아줌마)와 가구점을 차린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친구(가구는 철학이다) 등등. 시인의 눈은 욕망으로 피어나는 고통의 현장으로 시인도 모르게 외출을 한다. 그리고 욕망을 욕망으로 도시를 도시로 여자를 여자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어루만진다.

임연태 기자

삼사순례 및 소원성취
기도도량 동 해 사
매년 10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법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어 중생들의 어떤 소원도 이루어 지는 곳
기도영험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기도의 참 맛을 느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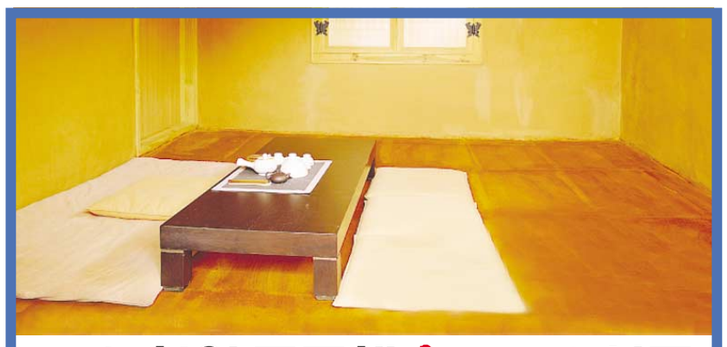
법비오는곳 사리보탑
※ 대형주차장, 방생기도처 5분 소요 · 낙산사 10분소요 · 후휴암 15분소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쿨크 中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